아픈 것도 서러운데···병원 못 가는 엄마 가장들

여성가장 자영업자 10명 중 3명 대부분 "치료비·가게 운영 때문" 10시간 초과 근로 건강관리 취약

한부모 여성가장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간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은 한부 모 여성가장 창업대출 지원사업인 '희망가 게'에 참여한 창업주 141명을 대상으로 올 해 7월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설문을 진 행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이유

〈한부모 여성가장 자영업자 141명 대상〉

경제적 부담 (56.8%) 가게 운영 (29.5%)

응답자의 31.2%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 (56.8%)과 '가게 운영'(29.5%) 때문인 것 으로 조사됐다.

실제 응답자의 29.9%가 건강상의 이유 로 점포를 운영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다해다 또 응답자의 63.8%는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가 50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50만 ~ 100 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24.2%였다.

아름다운재단은 "희망가게 창업주들은 평상시 건강관리에 취약한데다가 실제 건 강상의 문제가 생겨도 선뜻 치료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실명했다. 한부모 여성가장 자영업자들의 건강관 리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새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66%에 달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나쁘다' (22%), '아주 나쁘다'(4.2%) 등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26.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되는 건강 문제로는 '근골격계 질환'(33.3%)과 '부인과 질환'(29.8%)

이라고 답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10.7시간, 음식업은 12.6시간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 중 6~7명은 노동시간이 길어 '규칙 적 운동'(65.2%)이나 '규칙적 식사'(71. 7%)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은 "대다수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주는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40~50대"라 며 "사회적 지원으로 이들의 건강을 지키 지 않으면 자칫 가족의 전체의 생계가 위 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 전남 48곳을 포함해 등 전국적으로 287곳 이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비만·당뇨 어떻게 예방하나' 광주 남구, 오늘 무료 강좌

광주시 남구는 21일 오후 2시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현대인의 병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이라는 주제로 공개 건강강좌를 영다

배학연 조선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현대인의 생활습관 병으로 알 려진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등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남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지난 2010년 202만명에서 2015년 252만명으로 5년 새 24.6% 증가했다. 여성보다는 남성 당뇨환자가 많았으며, 남성은 50대가, 여성은 60대 발병률이 높았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강좌는 현대인의 생활습관성 질환인 복부 비만, 대사증후 군, 당뇨병과 그 합병증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예방법과 치료법을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건강 강좌를 통해 주 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하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문의 남구청 주월보건지소 만성질환팀 062-607-6122.

- 1002 007 0122.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은 치매 극복의 날 '치매 극복의 날'(9월21일)을 하루 앞둔 20일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구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구는 21일 무등산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 인근에서,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서비스 교육 참가자 내일까지 모집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은 22일까지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및 시설장, 활동가 등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을 모집한다.

서영대 사회복지학과 김윤배 교수가 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의 실

제'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광주 5·18교육관에서 오는 26일, 10월7일, 10월10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열린다.

김 교수는 장애인분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장

애인서비스 전문인력 17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당시 교육수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참가했던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교육 주제를 선정했다는 게 광주복지재단의 설명이다.

장현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함으로써 업무증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팩스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복지재단(www.gjwf. 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고급 팬션 및 주택

◆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다문화 가족 상담 3명 중 1명 '부부 문제'

광주지역 상담 지난해 1109명

다문화 가족이 부부 문제로 많은 상담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최근 펴 낸 '2015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결과 보 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10여 곳에서 상담한 다문화 가족 구성원 4만6712명 중 1만70494명 (37.5%)이 '부부 문제'를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부 문제의 주요 내용은 의사소통, 문화 차이, 가족구성원 갈등, 가정폭력, 성문제 등이다.

이어 '자녀 문제' 18.2%(8480명), '친 인척 문제' 7.7%(3606명), '법률상담' 5. 2%(2415명), '경제 문제' 4%(1884명) 순으로 조사됐다. '자녀 문제'로 상담을 받은 다문화 가족은 문화 차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견해차, 자녀 언어발달 문제, 자녀의 학교 내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 프로그램 이용자는 결혼 이민자 가 58.5%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22. 4%), 다문화 자녀(8.4%)가 뒤를 이었다.

이들에겐 상담 후 지원으로 멘토 연결 등 심리 정서적 지원(71.3%),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연계(8%), 전문 기관 연계 (5.1%) 등이 이뤄졌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109명 의 다문화 가족이 상담을 받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소방관 지친 몸과 마음 소통으로 풀자

광주동부소방 건강 프로그램

광주동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오는 29일까지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소방공 무원의 심신 안정과 외상 후 스트레스 (PTSD)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스트레스샤워'(사진)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트레스 샤워'는 30명 내·외의 인원 이 소규모 팀 단위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소통으로 풀어나 가는 프로그램이다. 광주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팀 구성원의 스트레스 공감하기, 스트레스 해소법 공유하기, 긍정적인 생각하는 연습하기, 실생활 정신건강 방법 배워보기, 전문심리상담팀과의 소통 등으로 구성됐다.

김남윤 동부소방서장은 "스트레스 샤 워와 같은 PTSD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에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전했다. /김경인기자 kki@

광주·전남 성매매 현주소 진단

28일 광주여성인권센터 토론회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방 지법 시행 1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오 후 2시부터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실에서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 망사건을 통해서 본-성산업 착취구조와 여성인권 실태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r돈의 글 계획인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생 한 여수유흥주점 여성종업원 사망사건 을 토대로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 는 폭력과 성산업 착취구조, 성매매 피 해 여성의 인권 실태 등을 이야기할 예 정이다.

한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 매추방주간(19~25일)을 맞아 21일 오 후 4시30분부터 성매매방지법 시행 12 주년 기념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의 062-232-8297. /김경인기자 kki@

매매가 5억 5천만



^{중개} 한국토지경매

자동차전시장 감정가28억 2천만, 최저가 19억 7천만

1522·3396

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







- ◆ 금융업소, 자동차전시장 감정가 28억 2천만, 최저가 19억 7천대 남구 월산동/건물 387평 / 대남대로변 / 1,2,3층(층별 입찰가)
- ▶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접 / 3층
- 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

 ◆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접 / 보성강 전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
-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운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식당 성업중

 ◆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
-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상가

 매매가 15억
- 서구 치평동 / 대지 56평 건물 61평 / 우체국인근 / 2층

 ◆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 ◆ 선원우텍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 ◆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 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부동산 매도/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